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아시아 분업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확대

목 차

■ 아시아 분업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확대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간 무역과 분업구조 변화	4
3. 시사점	14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경제연구실장)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조 규 립 선 임 연구 원 (2072-6240, jogyurim@hri.co.kr)

경제연구실/동향분석팀

: 오 준 범 연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개 요

2000년 이후 아세안 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9%에서 2015년 6.1%로 증가했으며,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6.7%에서 7.1%로 증가했다. 아세안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빠르게 증가해 2014년에는 1,328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1,285억 달러)를 추월하였다. 한중일 삼국 역시 아세안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중일 삼국의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음에 따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분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간 무역과 분업구조 변화

(가공단계별 교역 현황) 기존 한중일 삼국의 교역 구조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조립·가공하여 소비재를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아세안을 포함하여 지난 14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재를 수출하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對일 자본재 수입 비중은 2000년 25.3%에서 2014년 17.5%로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對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동기간 84.9%에서 74.6%로 감소하는 등 한중일 삼국간 분업체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한중일 삼국 모두 아세안에 대해 중간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큰 폭을 증가하였다.** 對아세안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14년 한국 79.8%, 중국 57.2%, 일본 72.6%에 달하며 삼국의 對아세안 소비재 수입 비중은 동년 한국 18.7%, 중국 8.7%, 일본 21.2%로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은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중간재의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비재는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 기존 한중일 삼국 간의 분업구조는 한국과 일본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출하고 소비재를 수입하는 형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기술 우위 여부에 따라 일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간 무역에서는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를 보이는 수직적 분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이 기술

우위를 의미하는 고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중간재의 경우 2000년 16.3%에서 2014년 49.1%로 증가했으며, 자본재는 2000년 23.4%에서 2014년 67.0%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일간에서 중간재에서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다소 감소했으나 자본재는 일본의 기술우위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일본과의 중간재 수평적 무역 비중은 2000년 6.4%에서 2014년 23.6%로 증가하며 한일간 기술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나, 자본재의 경우 한국의 기술열위를 의미하는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2000년 29.1%에서 2014년 35.1%로 오히려 증가했다.

중국과 일본간 무역은 중국이 일본의 고품질 중간재를 수입하는 형태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중-일간 중간재 무역은 중국이 품질 열위인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2000년 36.5%에서 2014년 4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저기술 부문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고기술 중간재의 수입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의 분업 구조에서는 생산기지로서 아세안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일방적 수출 중심의 교역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아세안간 무역은 한국이 아세안을 생산기지화하며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일방적 수출 중심의 무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생산 요소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중간재의 경우 2000년 37.5%에서 2014년 51.7%로 증가했으며, 자본재의 산업간 무역 비중은 2000년 60.6%에서 2014년 57.4%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아세안 교역 역시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 등 모든 분야에서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방적 무역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산업내 무역의 비중 변화를 보면 일부 품목에서 아세안과 중국간 기술 격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아세안간 무역도 일방적 무역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본재의 경우 산업내 무역 비중이 2000년 30.1%에서 2014년 38.4%로 증가하면서 분업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의 해외 생산 확대 등에 따른 기술수준별 생산 차별화 등으로 자본재에서 일본과 아세안간 생산 분업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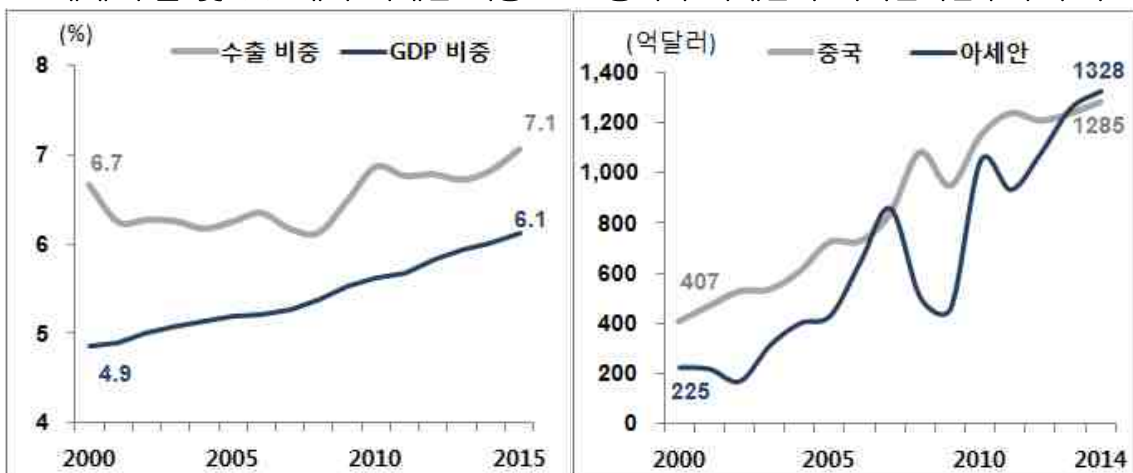
아시아 분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내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분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아시아의 분업 구조 상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 경제의 중요성 확대¹⁾

- 2000년 이후 아세안 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아세안은 풍부한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 외국인 투자 지속 등으로 지난 2000년 이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
 -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9%에서 2015년 6.1%로 상승했으며,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에서 7.1%로 상승
- 특히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용 등이 부각되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격히 증가
 - 중국은 2000년 이후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성장 속도 둔화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하락
 -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 등으로 인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주목받기 시작
 - 이에 따라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0년 1,051억 달러에서 2014년 1,328억 달러로 증가해 2014년 1,285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을 추월

< 세계 수출 및 GDP 대비 아세안 비중 > <중국과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 IMF, WTO.

주 : GDP는 PPP 기준.

자료 :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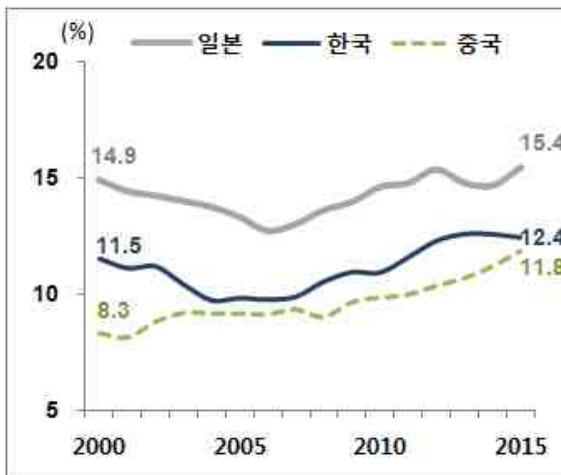
1)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지역협력기구임.

○ 한중일 삼국의 對아세안의 교역 및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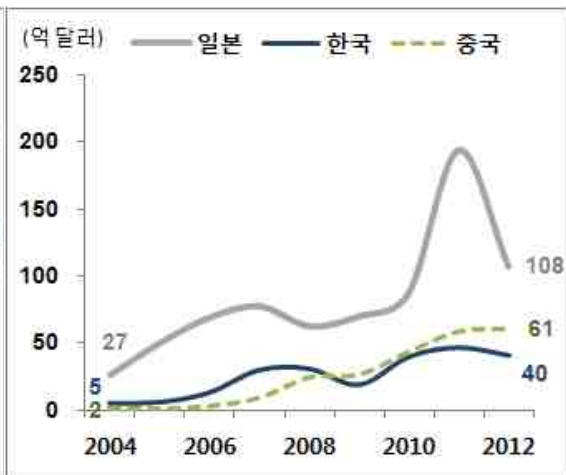
- 아세안의 세계 GDP 및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삼국의 對아세안 교역 비중 역시 증가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비중은 2000년 11.5%에서 2015년 15.2%로 증가(對아세안 수출 비중은 2000년 11.7%에서 2015년 15.2%로 증가)
 - 중국과 일본의 對아세안 교역 비중은 2000년 각각 8.3%와 14.9%에서 2015년 11.8%와 15.4%로 증가(對아세안 수출 비중은 동기간 중국이 7.0%에서 12.2%, 일본이 14.3%에서 15.2%로 증가)

- 아세안의 낮은 생산비용, 풍부한 시장잠재력 등으로 인해 한중일 삼국의 對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증가
 -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근로자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중국과 달리 아세안 주요국은 아직까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더욱이 아세안 인구가 6억 명이 넘는 등 소비 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풍부해 한중일 삼국의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
 - 일본의 對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는 2004년 27억 달러에서 2012년 10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동기간 2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증가, 한국은 5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

< 한중일의 對아세안 교역 비중 >



< 한중일의 對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 >



자료 :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주 : 각국 총교역액(수출+수입)에서 對아세안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UNCTAD.

○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한중일 삼국의 아세안과의 무역 확대 및 아세안으로의 투자 확대,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중일 삼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권 분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지난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한중일 삼국 간 역내 분업 구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 그러나 아세안이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 주목받음에 따라 한중일 삼국뿐만 아니라 최근 아세안과의 분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대

- (연구 방법) 한중일 삼국과 아세안 간 교역을 가공단계별로 나누고, 또 이를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으로 분류하여 2000~2014년 사이 한중일 삼국과 아세안간 분업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²⁾

- 가공단계는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에 따라 원자재와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분류
- 아세안 국가는 10개국 중 수출입 단가 분석이 가능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5 국가로 한정³⁾
- 양국의 품목별 수출입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경우 산업간 무역,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산업내 무역으로 판정⁴⁾

$$\frac{Min(X_{ijk}, X_{jik})}{Max(X_{ijk}, X_{jik})} \leq 0.1 \quad \text{단, } X_{ijk} \text{는 } i\text{국이 } j\text{국에 대한 } k\text{상품의 수출액을 의미}$$

- 산업내 무역의 경우 $0.80 \leq P_{ijk}/P_{jik} \leq 1.25$ 의 조건을 만족하면 수평적 산업내 무역이며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직적 산업내 무역으로 분류(단, P_{ijk} 는 i 국의 j 국에 대한 k 상품의 수출단가를 의미)
- 또한 $P_{ijk}/P_{jik} < 0.80$ 일 경우 i 국이 j 국에 비해 품질 열위인 저부가 수직적 무역, $1.25 < P_{ijk}/P_{jik}$ 일 경우 품질 상위인 고부가 수직적 무역으로 구분⁵⁾

2) 산업간 무역은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무역으로 국가 간 특정 산업의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 반면 산업내 무역은 동일 산업에 속하는 품목 간 교역이 동시 발생하는 것으로 생산품의 품질, 제품의 다양성, 기업의 시장 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을 의미.

3) 아세안-5를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산업내 무역 중 수평적 무역과 수직적 무역을 분류하기 위한 품목별 수출입 단가를 90% 이상 산출할 수 없어 제외. 단, 싱가포르를 품목별 수출입 단가를 산출할 수 있지만 생산기지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외.

4) Fontagné, Lionel, and Michael Freudenberg. Intra-industry trade: methodological issues reconsidered. Vol. 97. No. 1. Paris: CEPII, 1997.

5) 수평적 무역은 양국 간 질적으로 동일한 제화의 무역을 의미하며, 수직적 무역은 기술적 또는 질적인 차별성이

2.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간 무역과 분업구조 변화

1) 가공단계별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중국, 對일본 및 對아세안 교역

- (한국의 對중국 교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자본재 비중이 증가하였고, 수입에서는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모두 증가
 -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2000년 84.9%에서 2014년 74.6%로 감소한 반면, 자본재 비중은 동기간 9.9%에서 21.1%로 크게 증가
 - 한편 수입에서는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동기간 각각 50.3%에서 62.2%, 13.8%에서 20.6%로 모두 증가
 - 이는 한국의 對중국 무역이 가공수출을 위한 일방적인 중간재 수출 구조에서 이보다 상위 수준의 분업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⁶⁾

- (한국의 對일본 교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증가한 반면 소비재 비중이 감소하였고, 수입에서는 중간재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자본재 비중은 크게 감소
 - 한국의 對일본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2000년 64.1%에서 2014년 74.0%로 증가한 반면, 소비재 비중은 동기간 22.1%에서 11.9%로 크게 감소
 - 한편 수입에서는 중간재 비중이 동기간 70.1%에서 73.4%로 증가한 반면, 자본재 비중은 25.3%에서 17.5%로 크게 감소
 - 이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일본의 자본재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분업구조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자본재 비중이 증가하였고, 수입에서는 소비재 비중 크게 증가
 -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2000년 80.8%에서 2014년 79.8%

존재하는 재화의 무역을 의미. 이때 가격이 재화의 질적인 차이를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환율 변동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수출입 단가의 차이가 25% 이내라면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6) 이는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조치와 중간재 자급률 확대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본재 비중은 동기간 12.0%에서 14.3%로 증가

- 한편 수입에서는 소비재 비중이 동기간 5.2%에서 18.7%로 크게 증가
- 이는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아세안이 부상하면서 소비재 수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 한국의 對중국, 對일본 및 對아세안 교역 >

(단위: 억달러, %)

국가	종류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0		2014		2000		2014		2000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중국	원자재	0.7	(0.4)	6.2	(0.4)	20.6	(16.1)	19.5	(2.2)	-19.9	-13.2
	중간재	156.7	(84.9)	1084.7	(74.6)	64.3	(50.3)	560.4	(62.2)	92.3	524.3
	자본재	18.2	(9.9)	307.3	(21.1)	17.6	(13.8)	185.1	(20.6)	0.6	122.2
	소비재	8.9	(4.8)	54.9	(3.8)	25.4	(19.8)	135.5	(15.0)	-16.4	-80.6
일본	원자재	1.9	(0.9)	5.3	(1.6)	2.9	(0.9)	20.6	(3.8)	-0.9	-15.3
	중간재	131.2	(64.1)	238.6	(74.0)	223.2	(70.1)	394.6	(73.4)	-92.0	-156.1
	자본재	26.3	(12.9)	40.0	(12.4)	80.5	(25.3)	94.3	(17.5)	-54.2	-54.4
	소비재	45.1	(22.1)	38.5	(11.9)	11.7	(3.7)	28.2	(5.2)	33.5	10.3
아세안	원자재	0.4	(0.3)	3.1	(0.5)	24.8	(17.8)	67.9	(17.0)	-24.4	-64.8
	중간재	113.6	(80.8)	470.4	(79.8)	96.5	(69.2)	231.0	(57.7)	17.1	239.4
	자본재	16.9	(12.0)	84.1	(14.3)	10.9	(7.8)	26.7	(6.7)	6.1	57.3
	소비재	9.8	(6.9)	31.7	(5.4)	7.2	(5.2)	74.8	(18.7)	2.6	-43.1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품목별 데이터를 가공단계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제외되어 가공단계별 수출입 합계가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함에 유의.

○ 중국의 對일본, 對아세안 교역

- (중국의 對일본 교역)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소비재 비중이 감소하였고, 수입에서는 중간재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자본재 비중은 증가

- 중국의 對일본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2000년 27.7%에서 2014년 39.8%로, 자본재 비중은 10.4%에서 22.3%로 증가한 반면, 소비재 비중은 동기간 55.9%에서 36.5%로 크게 감소
- 한편 수입에서는 중간재 비중이 2000년 72.9%에서 65.9%로 감소한 반면,

자본재 비중은 21.3%에서 22.9%로 다소 증가

- 중국의 對일본 소비재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對일 교역에 있어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고 소비재를 수출하는 구조)

- (중국의 對아세안 교역)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원자재 비중이 크게 감소, 수입에서는 소비재 비중이 증가

-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은 2000년 각각 51.5%, 15.8%에서 2014년 57.2%, 20.4%로 증가한 반면 원자재 비중은 동기간 6.0%에서 1.4%로 크게 감소
- 한편 중간재 비중이 69.9%에서 64.8%로 감소하고 소비재 비중이 3.8%에서 8.7%로 증가
- 아세안으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소비재 수입 확대는 아세안이 생산 기지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

< 중국의 對일본 및 對아세안 교역 >

(단위: 억달러, %)

국가	종류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0		2014		2000		2014		2000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일본	원자재	24.8	(6.0)	21.0	(1.4)	5.2	(1.3)	42.5	(2.6)	19.6	-21.5
	중간재	115.2	(27.7)	593.8	(39.8)	302.5	(72.9)	1069.6	(65.9)	-187.3	-475.8
	자본재	43.3	(10.4)	333.4	(22.3)	88.3	(21.3)	371.3	(22.9)	-45.0	-38.0
	소비재	232.8	(55.9)	545.5	(36.5)	19.0	(4.6)	140.1	(8.6)	213.8	405.4
아세안	원자재	11.3	(10.4)	15.8	(0.8)	31.0	(18.4)	250.6	(15.7)	-19.7	-234.8
	중간재	56.0	(51.5)	1183.0	(57.2)	117.8	(69.9)	1032.0	(64.8)	-61.8	150.9
	자본재	17.2	(15.8)	422.5	(20.4)	13.5	(8.0)	172.7	(10.8)	3.7	249.7
	소비재	24.2	(22.2)	447.1	(21.6)	6.4	(3.8)	138.2	(8.7)	17.8	308.9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품목별 데이터를 가공단계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제외되어 가공단계별 수출입 합계가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함에 유의.

○ 일본의 對아세안 교역

- (일본의 對아세안 교역) 가공단계별 교역 구조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중간재의 무역흑자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

7)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모습임.

- 일본의 對아세안 가공단계별 교역구조는 2000~2014년 사이 큰 변화가 없지만, 일본의 중간재 수출이 다소 감소하고 수입이 늘면서 중간재의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
- 이는 일본의 對아세안 FDI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에 따른 일본 기업들의 기업내 무역(intra firm trade)의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일본의 對아세안 교역 >

(단위: 억달러, %)

국가	종류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0		2014		2000		2014		2000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아 세 안	원자재	1.2	(0.3)	7.2	(0.9)	62.3	(12.4)	149.1	(14.9)	-61.1	-142.0
	중간재	342.5	(75.0)	571.8	(72.6)	263.7	(52.6)	558.0	(55.7)	78.9	13.7
	자본재	91.6	(20.1)	164.4	(20.9)	73.5	(14.7)	82.6	(8.2)	18.1	81.9
	소비재	21.5	(4.7)	43.7	(5.6)	101.9	(20.3)	212.5	(21.2)	-80.4	-168.8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품목별 데이터를 가공단계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제외되어 가공단계별 수출입 합계가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함에 유의.

○ **소결 :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구조는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의 역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편 중**

- 기존 아시아의 교역 구조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
- 최근 아세안의 저렴한 생산비용 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격히 증가하고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의 역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편 중
 - 한국의 對일본 수입에서 자본재의 비중이 감소하고,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한중일 간 분업 체계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한중일의 對아세안 무역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의 분업구조에서 아세안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⁸⁾

○ 한국의 對중국, 對일본 및 對아세안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 한-중 간 무역에서는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를 갖는 수직적 분업 형태가 심화
 - 중간재의 산업내 무역 비중은 2000년 46.1%에서 2014년 65.8%로 증가했으며, 자본재의 산업내 무역 비중은 동기간 66.8%에서 79.6%로 증가
 - 그러나 중간재와 자본재 모두 한국이 품질 우위를 갖는 고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해 한-중 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반면 한-중 간 소비재 무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수입 구조가 심화되었으나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지속
 - 소비재는 중간재 및 자본재와 달리 산업간 무역 비중이 2000년 59.3%에서 2014년 70.0%로 오히려 증가
 - 그러나 산업내 무역 중 고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동기간 15.4%에서 21.0%로 증가한 것을 고려 시 한국의 기술적 우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

< 한-중 간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 >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중 간 재	산업간무역	53.9	48.0	34.2	34.2
	산업내무역	46.1	52.0	65.8	65.8
	수평적	7.7	10.6	12.7	9.2
	고부가 수직	16.3	31.7	42.5	49.1
	저부가 수직	22.2	9.6	10.6	7.6
자 본 재	산업간무역	33.2	24.5	60.9	20.4
	산업내무역	66.8	75.5	39.1	79.6
	수평적	20.8	4.1	13.2	4.6
	고부가 수직	23.4	58.0	24.6	67.0
	저부가 수직	68.1	13.4	1.2	8.0
소 비 재	산업간무역	59.3	69.0	71.1	70.0
	산업내무역	40.7	31.0	28.9	30.0
	수평적	13.6	6.4	7.3	4.9
	고부가 수직	15.4	21.4	15.5	21.0
	저부가 수직	11.6	3.2	6.0	4.2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1) 가공단계별, 무역형태별 분류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합계를 100%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

2) 가공단계별 총교역액(수출+수입) 대비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수평적, 수직적 무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8) 한중일 및 아세안간 교역은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 원자재는 제외함.

- 한-일 간 무역은 중간재 부문에서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다소 감소
 - 중간재의 한일 간 산업내 무역 비중은 2000년 53.0%에서 2014년 70.6%로 증가
 - 특히 산업내 무역 중 수평적 무역 비중이 동기간 6.4%에서 23.6%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일간 기술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26.4%에서 42.2%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일부 품목에서 한국의 기술 열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일 간 자본재 무역의 경우 일본의 기술 우위에 의한 한-일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일간 자본재 부문의 산업내 무역 비중은 2000년 36.0%에서 2014년 52.5%로 증가
 - 그러나 수평적 무역 비중은 동기간 2.8%에서 6.9% 증가에 그쳤으나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은 29.1%에서 35.1%로 증가
 - 이는 자본재 부문은 여전히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반영

< 한-일 간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중 간 재	산업간무역	47.0	44.2	39.0	29.4
	산업내무역	53.0	55.8	61.0	70.6
	수평적	6.4	23.2	20.5	23.6
	고부가 수직	20.3	5.4	2.8	4.7
	저부가 수직	26.4	27.2	37.8	42.2
자 본 재	산업간무역	64.0	50.9	64.6	52.5
	산업내무역	36.0	49.1	35.4	47.5
	수평적	2.8	2.2	5.1	6.9
	고부가 수직	4.2	8.0	3.2	5.5
	저부가 수직	29.1	38.9	27.2	35.1
소 비 재	산업간무역	65.8	45.8	47.3	60.2
	산업내무역	34.2	54.2	52.7	39.8
	수평적	3.4	5.8	1.7	3.6
	고부가 수직	7.0	10.0	10.7	9.5
	저부가 수직	23.8	38.3	40.3	26.7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 1) 가공단계별, 무역형태별 분류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합계를 100%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
- 2) 가공단계별 총교역액(수출+수입) 대비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수평적, 수직적 무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한-아세안 간 무역은 한국이 아세안을 생산기지화하며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일방적 수출 중심의 무역이 확대
 - 중간재 부문은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위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일방적 무역인 산업간 무역 비중이 2000년 37.5%에서 2014년 51.7%로 증가
 - 중간재 산업내 무역에서도 한국의 품질 우위를 의미하는 고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2000년 12.3%에서 2014년 27.6%로 증가
 - 자본재 부문 역시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었으며, 산업내 무역 중 고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동기간 2.5%에서 16.6% 증가

- 한편 한-아세안 간 소비재 무역의 경우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 구조가 심화되는 모습
 - 한국의 아세안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일방적 무역을 의미하는 산업간 무역 비중이 2000년 81.6%에서 2014년 85.9%로 급격히 증가
 - 이는 아세안에 대해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소비재를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

< 한-아세안 간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중 간 재	산업간무역	37.5	46.3	50.4	51.7
	산업내무역	62.5	53.7	49.6	48.3
	수평적	6.7	15.5	29.4	14.0
	고부가 수직	12.3	18.0	10.7	27.6
	저부가 수직	43.5	20.2	9.4	6.6
자 본 재	산업간무역	60.6	66.1	72.7	57.4
	산업내무역	39.4	33.9	27.3	42.6
	수평적	11.0	3.4	1.5	2.2
	고부가 수직	2.5	19.0	11.1	16.6
	저부가 수직	26.0	11.5	14.7	23.8
소 비 재	산업간무역	81.6	86.5	83.4	85.9
	산업내무역	18.4	13.5	16.6	14.1
	수평적	4.0	2.1	1.8	2.5
	고부가 수직	5.1	6.8	8.8	6.7
	저부가 수직	9.2	4.6	6.0	4.9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1) 가공단계별, 무역형태별 분류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합계를 100%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

2) 가공단계별 총교역액(수출+수입) 대비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수평적, 수직적 무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중국의 對일본 및 對아세안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 중-일 간 중간재 무역은 중국이 일본의 고품질 중간재를 수입하는 형태가 심화되는 모습
 - 중-일간 중간재 무역은 산업내 무역 비중이 2000년 54.0%에서 2014년 66.1%로 증가했으나, 중국이 품질 열위인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동기간 36.5%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
 - 특히 중국의 중간재 부문에서 對일 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2000년 187억 달러 → 2014년 476억 달러)을 고려할 때 중-일 간 기술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
- 자본재 부문은 여전히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중-일 간 산업내 무역 비중이 2000년 47.1%에서 2014년 38.1%로 감소하였지만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은 4.0%에서 7.1%로 증가
 - 산업간 무역의 경우 중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이 늘었는데, 이는 중-일간 기술격차를 고려할 경우 중국이 저기술 자본재 중심의 수출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중-일 간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중 간 재	산업간무역	46.0	36.8	34.1	33.9
	산업내무역	54.0	63.2	65.9	66.1
	수평적	10.1	15.8	10.3	12.9
	고부가 수직	7.4	12.1	2.7	3.7
	저부가 수직	36.5	35.3	52.9	49.4
자 본 재	산업간무역	52.9	53.8	62.5	61.9
	산업내무역	47.1	46.2	37.5	38.1
	수평적	32.6	40.0	24.5	26.6
	고부가 수직	10.5	4.1	2.6	4.3
	저부가 수직	4.0	2.1	10.5	7.1
소 비 재	산업간무역	90.8	88.1	87.6	89.8
	산업내무역	9.2	11.9	12.4	10.2
	수평적	2.7	4.9	0.5	5.0
	고부가 수직	2.4	1.5	5.8	1.0
	저부가 수직	4.1	5.5	6.1	4.1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 1) 가공단계별, 무역형태별 분류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합계를 100%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
- 2) 가공단계별 총교역액(수출+수입) 대비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수평적, 수직적 무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중-아세안 간 중간재 무역은 일부 부문에서 아세안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혔을 것으로 추정
 - 중-아세안 중간재 무역은 양국간 특화된 품목의 교역을 의미하는 산업간 무역 비중이 5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 그러나 산업내 무역 중 중국의 품질 열위인 저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이 2000년 27.0%에서 2014년 33.7%로 증가
 - 아세안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시 일부 품목에서 아세안과 중국간 기술 격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 존재

- 소비재와 자본재의 경우 중국과 아세안은 아직까지 산업간 무역이 중심
 - 자본재 부문은 양국의 산업간 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일방무역 형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소비재 부문은 산업간 무역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 79.6%로 나타나 자본재와 마찬가지로 일방무역 형태 중심

< 중-아세안 간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중 간 재	산업간무역	54.9	67.3	66.4	52.2
	산업내무역	45.1	32.7	33.6	47.8
	수평적	9.1	14.0	8.9	8.4
	고부가 수직	8.9	7.4	4.3	5.7
	저부가 수직	27.0	11.3	20.4	33.7
자 본 재	산업간무역	42.1	68.4	79.1	63.6
	산업내무역	57.9	31.6	20.9	36.4
	수평적	42.6	24.5	15.5	24.7
	고부가 수직	12.1	5.5	1.5	7.5
	저부가 수직	3.2	1.6	3.9	4.2
소 비 재	산업간무역	81.7	72.7	73.6	79.6
	산업내무역	18.3	27.3	26.4	20.4
	수평적	7.1	9.8	3.8	8.9
	고부가 수직	6.3	8.5	13.0	4.9
	저부가 수직	5.0	9.0	9.7	6.6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1) 가공단계별, 무역형태별 분류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합계를 100%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

2) 가공단계별 총교역액(수출+수입) 대비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수평적, 수직적 무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일본의 對아세안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 일-아세안 간 중간재 및 자본재 무역은 품질별 생산 차별화가 이루어지며 일부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중간재의 산업간 무역 비중은 아세안의 대일본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2000년 42.4%에서 2014년 49.5%로 증가
 - 자본재의 경우 산업간 무역 비중이 69.9%에서 61.6%로 감소하였지만 일본의 고부가 수직적 무역 비중은 19~20% 수준을 유지
 - 일본의 해외 생산 확대 추세, 아세안간의 기술 격차 등을 고려시 일본과 아세안은 각각 고품질과 저품질 제품으로의 생산 분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소비재의 경우 아세안의 생산기지화됨에 따라 일본이 아세안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소비재를 수입하는 구조가 자리잡음
 - 일-아세안간 소비재 산업간 무역 비중은 2000년 87.0%에서 2014년 84.6%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일-아세안 간 가공단계별 분업구조 변화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중 간 재	산업간무역	42.4	47.3	47.1	49.5
	산업내무역	57.6	52.7	52.9	50.5
	수평적	9.8	11.4	10.2	9.8
	고부가 수직	38.1	34.5	27.5	25.6
	저부가 수직	9.6	6.8	15.2	15.2
자 본 재	산업간무역	69.9	68.6	67.7	61.6
	산업내무역	30.1	31.4	32.3	38.4
	수평적	7.5	4.9	5.9	10.7
	고부가 수직	19.1	19.4	18.9	20.3
	저부가 수직	3.5	7.2	7.5	7.3
소 비 재	산업간무역	87.0	84.5	84.8	84.6
	산업내무역	13.0	15.5	15.2	15.4
	수평적	2.6	2.1	2.1	2.9
	고부가 수직	8.1	11.8	8.7	10.1
	저부가 수직	2.3	1.6	4.4	2.3

자료 : UN Comtrade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1) 가공단계별, 무역형태별 분류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합계를 100% 하였기 때문에 실제 국가별 수출입 총액과 다소 상이.

2) 가공단계별 총교역액(수출+수입) 대비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수평적, 수직적 무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종합 정리

- 기존 한중일 삼국 간의 분업구조는 한국과 일본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출하고 소비재를 수입하는 형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기술 우위 여부에 따라 일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중 간 무역에서는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를 갖는 수직적 분업 형태가 심화
 - 또한 중-일 간 중간재 무역은 중국이 일본의 고품질 중간재를 수입하는 형태가 심화되는 모습
 - 이는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열위에 있는 중간재의 수입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아세안의 경우 생산기지로서 아세안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한중일 삼국과 일방적 수출 중심의 교역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아세안 간 무역은 한국이 아세안을 생산기지화하며 중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일방적 수출 중심의 무역이 확대
 - 일-아세안 간 중간재 및 자본재 무역은 품질별 생산 차별화가 이루어지며 일부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3. 시사점

첫째,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분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분업 구조는 중국 및 아세안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과거와는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
- 국내 주력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아시아 분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중국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구조를 벗

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 구조가 중간재 중심에서 자본재와 소비재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아세안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둘째, 아시아의 분업 구조 상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중국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한-중간 무역 패턴은 과거 일방적인 중간재 수출과 이를 조립 가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한-일 간 여전히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없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한중일 및 아세안을 포함하는 아시아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역할이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
 - 현재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간기술제품에서의 연구·개발 등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중국의 역할이던 조립·생산이 아세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

셋째,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아세안은 풍부한 인구에서 나오는 노동력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을 고려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특히 장기적으로 아세안의 소비재 및 인프라 개발 시장에 진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
 - 향후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매여력이 높은 중산층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자원 개발 및 신도시 건설 등 인프라 개발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아세안에 진출 시 단순히 임금 등 비용구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

조규림 선임 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오준범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